가정환경과 수치심, 죄책감이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Shame and Guilt Proneness on Parentification of Male and Female Juveniles

김은경(Eun Kyung Kim)[1)]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juvenil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ification and to discover if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hame and guilt proneness on the parentification of juveniles according to gender were observed under the control of negative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With this purpose in mind, the researcher measured negative family environments, and the shame proneness, guilt proneness, and parentification of 225 male and 243 female students in middle school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parentification according to gender male juveniles showed higher levels of parentification than female juveniles. In addition, after negative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were under control, both shame proneness and guilt proneness effected the parentification. Furthermore, while the effec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guilt pron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arentification for males and shame pron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entification for females.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female's parentification as effected by shame proneness nees to be be noted although male juveniles showed higher levels of the parentification.

Key Words : 부정적 가정환경(negative family environment), 수치심(shame proneness), 죄책감(guilt proneness), 부모화(parentification).

[1)]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책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Eun Kyung Kim, Center for Gender Equality, Hanyang University, 17 Haengdang-dong,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Email : ekkim@hanyang.ac.kr

I. 서 론

부모화(parentification)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의 자녀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 것을 말한다(Boszormeny-Nagy & Spark, 1973; Jurkovic, 1997).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배려는 일종의 덕목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권장되어 왔기 때문에(박병호, 1995) 이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연구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Jurkovic, 1997). 부모화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가정에 보살핌을 제공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Bowlby, 1973; Davies, 2002). 즉,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익숙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이 부각되면서 부모화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시되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아온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모화가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부모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환경 변인에 관련해서 이루어져왔다. 즉, 부모가 만성적인 질병이나 중독(Kelley et al., 2007; Tompkins, 2007), 심리적 문제(Jurkovic, Kuperninc, & Casey, 2000) 등을 안고 있거나, 이혼(Jurkovic, Thirkeild, & Morrell, 2001)이나 이민(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전쟁이나 재난(Leavitt & Fox, 1993) 등으로 인해 본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모역할의 포기나 방임, 그리고 이로 인하여 조성되는 가정환경적 결핍이 부모화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여러 측면에서 부모가 제역할을 못하는 역기능적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모에게 과도하게 충성하거나(Crittenden & DiLalla, 1988; Kempe et al., 1962) 화난 부모를 달래는 행동을 보이는데(Hennessy, Rabideau, Cicchetti, & Cummings, 1994; Main & Hesse, 1990),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화 경향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화에 관련해서 환경적 요인이 주로 고려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부모화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결핍 상황에서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조은영 · 정태연, 2004).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의 영향력이 제거되거나 감소된 후에도, 또는 성장하여 그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난 후에도 계속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심리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손혜미, 2008; 홍정희, 2008). 즉, 부모화를 지속시키는 자녀의 개인내적변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내적인 변인을 배제한 채 환경적인 영향 등 외부요인만 다룬다면 부모화의 발달이나 진행에 관련한 정확한 경로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부모화에 대한 이해는 제한된 수준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부모화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개인내적 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 개인내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수치심이다(김은영, 2009; 신주연, 2003; 이정숙 · 김은경, 2007; Wells & Jones, 2000). 수치심, 죄책감 등은 도덕적 자기평가 및 판단에 관여되는

정서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수치심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남기숙, 2002). 연구에 의하면,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반영을 얻지 못할 때 아동은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서 수치심을 발달시키게 된다(Andrews, 1995; Gilbert & McGuire, 1998). 그리고 이러한 수치심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부모를 강박적으로 돌보는 등의 과도한 역할수행을 하게 된다(Cleary, 1992; Glickauf-Hughes & Wells, 1997). 이렇게 볼 때 부모화는 과도한 수치심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여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Jurkovic (1997)도 높은 수준의 수치심이 부모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학대적인 양육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화된 경향을 보이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정숙 · 김은경, 2007).

이제까지 부모화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주로 수치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Jurkovic(1997)에 의하면 죄책감 역시 부모화와 관련이 있다. 즉, 부모의 권위가 남용되어 복종이 강요될 때 아동은 이에 저항하게 되며,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발하거나 저항할 때, 그것이 비록 과도하게 가해지는 권위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런 행동이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느끼게 되고, 이것은 곧 후회와 양심의 가책 등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런 죄책감이 발생하면 그것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저항을 보상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모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거나 부모를 과도하게 돌보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의 과도한 권위나 억압이 내적인 저항과 반발, 그리고 이로 인한 죄책감을 유발할수록 자녀는 더욱더 부모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아동의 자발성과 내적 능력을 해치기 때문에, 죄책감에 의해 발생하는 부모화는 부정적인 양상을 띤다고 Jurkovic(1997)은 말한다.

이제까지 수치심과 죄책감은 많은 유사점과 일정 정도의 차이점을 갖는 자의식정서로서 종종 비교 연구되어 왔다(김은경, 2009; 이영호 · 심종은, 2000; 전철은 · 현명호, 2003; Andrews, Qian, & Valentine, 2002; Dearing, Stuewig, & Tangney, 2005; Stuewig & McCloskey, 2005). 그런데 수치심과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죄책감이 부모화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도덕적 과실과 오류에 직면해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평가, 수정하는 정서(유경 · 민경환, 2002)로서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서 동일하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Damon, 1988; Eisenberg, 1986; Harris, 1989), 한편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서경험이 다르고 (Lewis, 1971) 그 영향도 여러 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Andrews et al., 2002; Stuewig et al., 2005). 가령 Lewis(1971, 1987)에 의하면 수치심을 느낄 때는 자기 '존재'나 그 가치가 부정되므로 주로 회피와 위축 반응이 나타나서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자기 내면으로 숨고자 한다. 또는 반대로 잘못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격렬한 분노감을 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죄책감을 느낄 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므로 존재 자체가 부정될 때보다는 그 고통이 좀더 견딜만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회피하거나 투사하기보다는 잘못을 고백하거나 보상, 또는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이처럼 수치심과 죄책감이 정서경험이나 반응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각각은 부모화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죄책감이 수치심에 비해 보다 적응적이고 덜 해로운 정서라는 연구(전철은 · 현명호, 2003; Dearing et al., 2005; Stuewig & McCloskey, 2005)를 감안하면, 죄책감이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 한편 Bowlby(1980)는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는 강한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녀가 부모 역할을 수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하여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강박적으로 돌보는 것(이정숙 · 김은경, 2007)이 이처럼 죄책감과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죄책감은 수치심 못지않게 부모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일정 정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 대표적인 자의식정서인 수치심과 죄책감이 부모화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즉, 수치심이나 죄책감 각각이 부모화와 관련된 요인인지,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그러한 각각의 개인내적 변인들이 부모화에 계속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대해 갖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고려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것이 성별이다. 전체적인 부모화 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화의 하위요인인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김신희, 2008; 마수영, 2009; 문비, 2006). 한편 부모화에 있어 전반적인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손혜미, 2008)도 제시되는 등 성별 차이에 관련하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그 영향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들(권재환 · 이은희, 2006; 박영신 · 김이철, 2000)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별에 따라 부모화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 또한 남녀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취약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Bybee, 1998; Walter & Burnaford, 2006)들을 감안한다면, 부모화에 대한 영향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학대 경험 후의 정서반응에서 남자 청소년은 반성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복수를 원하거나 가출을 원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양심영, 2000). 이처럼 동일하게 학대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도 남녀 청소년이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학대 등 부정적인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은 부모화 경향에 있어서도 남녀가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가정환경 변인을 통제한 후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때이다(Erikson, 1950). 초기 청소년기인 이 시기에 자신의 정상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제해가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결국 주요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따라서 발달과정상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제까지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학대 등 환경변인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화가 과연 어떤 내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양상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데도 부모화를 설명하는 성별 변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변인을 통제한 후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녀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에 각각 어떤 변인이 영향력을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가 수치심에 의해 설명되는 행동인지, 죄책감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되는 행동인지, 혹은 양자 모두가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남녀 청소년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부모화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시내 4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512명이었으나, 이중 한 문항이라도 답하지 않았거나 무작위로 응답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46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14세 이하가 218명(46.6%), 15세 226명(48.3%), 16세 이상이 24명(5.1%)으로 14, 15세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14.44세(SD = .82)였다. 남자는 225명(48.1%), 여자는 243명(51.9%)으로 여자가 약간 더 많았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196명(41.9%), 가운데가 62명(13.2%), 막내가 177명(37.8%)으로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외동은 33명(7.1%)이었다. 부모의 학력 관련해서, 아버지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189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186명(39.7%)으로, 고졸이나 대졸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그외 중학교 졸업 이하 29명(6.2%), 전문대 졸업 17명(3.6%) 대학원 졸업이 47명(10.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54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161명(34.4%)으로, 고졸이나 대졸이 전체의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중학교 졸업 이하 27명(5.8%), 전문대 졸업이 12명(2.6%), 대학원 졸업이 14명(3.0%)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정적 가정환경

부정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현수(1997)의 학대 및 방임경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1문항으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세 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방임은 기본적인 보살핌의 소홀에 관련한 7문항, 신체적 학대는 가볍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는 구타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처벌 행위에 관련한 7문항, 정서적 학대는 무시, 모욕, 차별, 편애 등 심리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에 관련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각각의 경험에 대하여 '전

혀 없었다', '일 년에 한두 번', '3, 4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경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방임이 .697, 신체적 학대가 .876, 정서적 학대가 .874, 그리고 전체 부정적 가정환경 척도의 신뢰도는 .899로 나타났다.

2) 수치심, 죄책감

수치심,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der와 Lewis(1987)가 개발한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를 우리말로 번안한 심종온(1999)의 자의식정서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치심, 죄책감 등 자의식에 관련된 정동적 기술어를 제시하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 중 수치심 문항은 당황스러운 느낌,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 등 수치감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죄책감 문항은 후회스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낌 등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정도의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수치심은 .869이었고, 죄책감은 .723이었다. 전체 자의식정서척도의 신뢰도는 .898로 나타났다.

3) 부모화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Jurkovic, Kuperninc과 Casey(2000)가 개발한 FRS-Y(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RS-Y는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공정성 등의 세 개 하위척도로 구분된 총 34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다. 정서적 돌봄은 '부모님들은 서로 싸울 때 내가 끼어서 편들어주기를 바라신다' 등 부모를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성은 '우리 가정에서 나는 대체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야하는 것 같다'처럼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적 돌봄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주로 반영되며, 부정적 가정환경의 구성요인인 방임과 관련성이 높아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공정성 관련 내용은 부모화의 맥락에 맞추어 불공정성으로 역코딩하여 점수화하였기 때문에, 결국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정서적 돌봄이 .606, 불공정성이 .725였으며, 전체 부모화의 신뢰도는 .699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서울 소재 3개 중학교에서 담당교사에 의해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사전에 연구자가 해당교사에게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

<표 1> 부모화와 각 변인간 상관관계

		부정적 가정환경	수치심	죄책감
부모화	전체 (남자/여자)	.539** (.546**/.540**)	.438** (.416**/.464**)	.391** (.427**/.356**)

**p < .01.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 부모화와 변인간 상관관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표 1은 부모화와 각 변인 간의 상관을 검증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모화는 가정환경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서(r = .539, p < .01), 안전과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살핌이 결핍되거나, 양육환경에서 구타와 폭력을 당하거나 언어적, 정서적으로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부모화 경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는 수치심, 죄책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서(r = .391～.438, p < .01), 자신의 존재나 행동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부모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차이

변인	남자 청소년 (n = 225)	여자 청소년 (n = 243)	t
	$M(SD)$	$M(SD)$	
부모화	39.40(6.65)	37.90(6.70)	2.433*
부정적 가정환경	33.35(9.51)	33.05(11.28)	.309
수치심	22.34(7.83)	22.29(7.75)	.075
죄책감	14.37(4.91)	13.89(5.23)	1.033

*p < .05.

표 2는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부모화 수준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39.40점,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37.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t = 2.433, p < .05),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향을 나타냈다.

2.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부모화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의 영향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과 죄책감이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선성 진단(VIF)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s)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

<표 3> 부모화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R^2	$\triangle R^2$
부정적 가정환경	.346	.539***	.291***	.291***
수치심	.118	.137*	.347***	.057***
죄책감	.184	.139*		

*p < .05. ***p < .001.

에서 죄책감(β = .139, p < .05)과 수치심(β = .137, p < .05)이 부모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부모화되는 정도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과 죄책감이 청소년의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선성 진단(VIF)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s)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죄책감(β = .319, p < .001)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는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 역할을 떠맡아 부모를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치심(β = .279, p < .001)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는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 역할을 떠맡아 부모를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별에 따라 부모화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부정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 수치심, 죄책감 중 어떤 요인이 부모화를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심과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성별에 따라 부모화 정도에서 차이를 보여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아들보다는 딸이 부모를 더 많이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기 쉬운

<표 4> 남녀 청소년의 부모화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의 중다회귀분석(남/녀)

독립변인	B		β		R^2		$\triangle R^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가정환경	.382	.321	.546***	.540***	.298***	.292***	.298***	.292***
수치심	-.048	.242	-.056	.279***	.368***	.355***	.069***	.063***
죄책감	.432	.002	.319***	.002				

***p < .001.

데,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의 경우 아들이 더욱 부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아들에게 부모와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육방식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화는 단순한 부모에 대한 돌봄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을 저해할 만큼 과도하게 부모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부담감을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춘기에 이른 아들들이 딸에 비해 일견 가정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그 이면에서 실상은 어려움에 처한 부모 돌보고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과중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수치심, 죄책감이 모두 부모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수치심이 부모화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김은영, 2009; 신주연, 2003; 이정숙 · 김은경, 2007; Andrews, 1995; Cleary, 1992; Gilbert & McGuire, 1998; Glickauf-Hughes & Wells, 1997; Jurkovic, 1997; Wells & Jones, 2000). 즉, 자녀가 자기비판적인 정서인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떠맡거나 부모를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부모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역시 부모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화를 연구해온 Jurkovic(1997)도 죄책감과 부모화가 관련을 가진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부모가 권위를 남용하여 복종을 강요할 때, 아동은 이에 저항하게 되지만 한편 부모는 애정과 보살핌, 기본적인 의식주 등을 제공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의 과정에서 죄책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죄책감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정서이기 때문에(유경 · 민경환, 2002), 아동은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종 어떤 보상행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보상행동으로서 부모를 과도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부모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 관련하여, 최근 들어서 수치심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정서임에 반하여 죄책감은 보다 적응적이고 덜 해로운 정서라고 보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전철은 · 현명호, 2003; Andrews et al., 2002; Dearing et al., 2005; Stuewig & McCloskey, 2005). 그런데 이번 연구는 죄책감과 수치심 모두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죄책감이 적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해로울지라도, 수치심과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역할을 전도시킴으로써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정환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죄책감이, 여자는 수치심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여자 청소년은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 역할을 떠맡아 부모를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의식 정서로서, 자신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정서를 말한다(Lewis, 1971; Tangney, 1992). 흔히 사용되는 두 정서에 대한 구분은 실패나 잘못의 원인을 자기 존재에 둘 때 수치심을, 행동에 둘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Kalat & Shiota, 2007). 이렇게 본다면 남자는 자신이 한 어떤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후회와 양심의 가

책을 느낄 때 부모화되는 경향이 큰 반면에, 여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부모화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절하나 비판에 관련되므로 주로 회피와 위축 반응을 유발하는 한편, 죄책감은 자기 행동에 대한 평가절하나 비판에 관련되므로 잘못의 보상이나 복구를 유발한다(Lewis, 1971, 1987). 이렇게 본다면 남자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게 될 때 그것을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도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화는 일종의 보상행동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여자 청소년은 수치심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친다. 즉, 수치심이 높아져서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때 과도할 정도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화 경향도 심해졌다. 그런데 Jacoby(1991)에 의하면 높은 수치감은 자기 확신이나 자아존중감의 부족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자기 확신과 자존감의 부족은 보상행동에 의해 완화되기 어렵다. 또한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수치심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ney, Burggraf, & Wagner, 1995;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결국 환경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강박적으로 돌보는 것이 부모화이고(이정숙 · 김은경, 2007), 부모화가 상황의 부적절함이나 돌봄의 결핍에 대한 보상행동이라고 볼 때, 수치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는 죄책감에 관련된 남자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은 자아정체감 전체를 위협하는 강렬한 정서로서, 행동의 보상에 의해 완화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Lewis, 1971). 즉,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껴서 부모화 경향을 보이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그 부모화 행동이 수치심을 보상하거나 완화해주지 못한 채 만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을 구분해서 보면 남자는 죄책감이, 여자는 수치심이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남녀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부모화와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가 다른 성질을 띤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과도하게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모화 행동이 어떤 문제에 대한 보상 내지 복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실패나 잘못의 원인을 자기 존재 자체에 두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화가, 과연 수치심과 관련되는 근원적인 문제인 자기 확신이나 자존감의 부족을 보상하거나 복구하는 방편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결국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제안해볼 수 있는 것은, 설령 남자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수치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부모화 경향을 유발하는 심리적 변인, 즉 개인내적인 변인에서 남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단순히 부모화 경향 자체를 검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경향을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관심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수치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자 청소년의 부모화 경

향에 관심을 기울여야함을 밝힘으로써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에 따른 내적 역동의 차이에 접근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화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개인내적인 변인인 수치심, 죄책감이 부모화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모화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남녀에 따라 수치심을 매개로 하는 경우와 죄책감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부모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관련하여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거나(손혜미, 2008) 여자가 더 높은 부모화 수준을 보인다고 한 연구도 있었다(마수영, 2009). 이처럼 부모화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한 만큼,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연구하거나 성별과 부모화를 중재하는 요인을 찾는 등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부모화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 부모화에는 부적응적 측면만이 아니라 적응적인 측면도 있다(Hooper, Marotta, & Lanthier, 2008; Jurkovic, 1997). 또 죄책감에 영향을 받는 부모화는 수치심에 영향을 받는 경우와는 다르게 보다 적응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적응적인 특성을 띠는 부모화에 대해 탐색하고, 특히 적응적인 부모화와 파괴적인 부모화 양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며 그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재환 · 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김신희(2008).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경(2009).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의 중재효과 :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5), 45-74.

김은영(2009).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개념 및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성(2007). 성별 차이에서 본 학대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33-337.

남기숙(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 문제. **심리과학, 11**(1), 35-52.

마수영(2009). 자녀의 부모화와 심리적 강인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비(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영신 · 김이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손혜미(2008). 부부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부모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주연(2003). 성장기의 부모화경험이 재학생의 병리

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종온(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심영(2000). 청소년 학대의 실태 및 대응방식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77-106.

유경 · 민경환(2002). 아동의 도덕적 정서의 발달 : 수치심과 죄책감. **심리과학, 11**(1), 53-69.

이영호 · 심종은(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3), 485-499.

이정숙 · 김은경(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전철은 · 현명호(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4), 763-776.

조은영 · 정태연(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9**(1), 43-62.

홍정희(2008).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ndrews, B. (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2), 277-285.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 (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1), 29-42.

Boszormeny-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 Harper & Row.

Bowlby, J. (1973).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Vol. 2 of Attachment and Loss). London : Hogarth Press.

Bowlby, J. (1980). *Loss : Sadness and Depression.* (Vol. 3 of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 Basic Books.

Bybee, J. (1998).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guilt during. adolescence.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113-125). San Diego : Academic Press.

Carroll, J. J., & Robinson, B. E. (2000). Parentification and depression among adult children of workaholics and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The Family Journal, 8*(4), 360-367.

Cleary, M. J. (1992). Shame and Shame-based syndromes :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ion. *Health Values, 16*(6), 47-54.

Crittenden, P. M., & DiLalla, D. L. (1988). Compulsive compliance : The development of an inhibitory coping strategy in infa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5), 585-599.

Damon, W. (1988). *The moral child :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New York : Free Press.

Davies, P. T. (2002).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Dearing, R. L., Stuewig, J., & Tangney, J. P. (2005). On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shame from guilt : Relations to problematic alcohol and drug use. *Addictive behaviors, 30*(7), 1392-1404.

Eisenberg, N. (1986). *Altruistic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Hilsdale, NJ : Erlbaum.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Gilbert, P., & McGuire, M. (1998). Shame, social roles

and status : the psychobiological continuum from monkey to human. In P. Gilbert and B. Andrews (Eds.), *Shame :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99-125).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Glickauf-Hughes, C., & Wells, M. (1997). *Object relations therapy : An individualized and interactive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 Jason Aronson.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6, pp. 89-11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xford : Blackwell.

Hennessy, K. D., Rabideau, G. J., Cicchetti, D., & Cummings, E. M. (1994). Response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to different forms of interadult anger. *Child Development, 65*(3), 815-828.

Hooper, L. M., Marotta, S. A., & Lanthier, R. P. (2008). Predictors of growth and distress following childhood parentification : A retrospective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5), 693-705.

Jacoby, M. (1991). *Shame and the origins of self-esteem.* London : Routledge.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 Brunner/Mazel.

Jurkovic, G. J., Kuperminc, G. P., & Casey, S. (2000). *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Available from George J. Jurkovic at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MSC 2A1155, 33 Gilmer ST. SE Unit, Atlanta, GA 30303-3080).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Kalat, J. W., & Shiota, M. N. (2007). *Emotion.* Belmont, CA; Thomson.

Kelley, M. L., French, A., Bountress, K., Keefe, H. A., Schroeder, V., Steer, K., Fals-Stewart, W., & Gumienny, L. (2007). Parentification and family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of origi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dictive Behaviors, 32*(4), 675-685.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1), 17-24.

Leavitt, L. A., & Fox, N. A. (1993). Introduction. In L. A. Leavitt & N. A. Fox (Eds.),.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ar and violence on children* (pp. 243-278). Hillsdale, NJ : Erlbaum.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Lewis, H. B. (1987). Introduction : shame-the “Sleeper” in psychopathology. In H. B. Lewis (Eds.),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sdale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in, M., & Hesse, E. (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 Is frightened and 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61-182).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uewig, J., & McCloskey, L. A. (2005). Relation of Child Maltreatment to Shame and Guilt Among Adolescents : Psychological Routes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Child Maltreatment, 10*(4), 324-336.

Tangney, J. 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2), 199-206.

Tangney, J. P., Burggraf, S. A., & Wagner, P. E. (1995).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psychopathological problems.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 Guilford.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HIV infection :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108-118.

Walsh, S., Shulman, S., Bar-On, Z., & Tsur, A. (2006). The role of parentification and family climate in adaptation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Israe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2), 321-350.

Walter, J. L., & Burnaford, S. M. (2006).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s' guilt and shame : The role of family climate and gender.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8*(2), 321-338.

Wells, M., & Jones, R. A.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2011년 2월 20일 투고, 2011년 5월 2일 수정
2011년 5월 24일 채택